



칼럼

임기를 마치며

2019년 2월에 시작된 임기가 어느덧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국의 질병일 것 같았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2020년 한해가 다 가도록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앉아 가벼운 일상 혹은 업무를 상의하던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이유로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교정이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인문대학의 3개 건물 역시 폐쇄되었거나 제한 개방으로 많은 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문대학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되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모두가 인문대학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우나, 모두가 잠시 멈추는 이 순간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선, 코로나 이후 새롭게 다가온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습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8개 학과 전공강의실에 원격수업 강의실 구축했습니다. 이는 기존 학과 전공강의실을 활용하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면수업과 동시에 실시간 화상강의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인문대 3호관 앞 벤치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고 마이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개방된 공간에서도 인문학 담론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다시 서로 가깝게 모여 앉을 날을 생각하며 학생 자치 공간 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인문대 3호관 천장 석면 교체공사 완료로 보다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학실습실(독문·불문·일본·중문) 4개실을 교양강의실 2개로 변경하여 강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영문과 어학 실습실을 환경 개선 및 비품 확충을 통해 공용 어학 실습실로 만들어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낙후된 학생 공용 사물함 교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각종 전자장비(세금경비, 소방장비 등)이 설치되어 비좁고 열악했던 3호관 환경관리원 휴게실 환경개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류 재 한
인문대학 학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경쓰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월을 가득 품은 건물의 환경 개선을 짧은 시간과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다보니 우선 순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호관 교수연구실의 창틀 보완 작업 등은 막대한 예산 문제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외적으로 저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국회청원'을 8개 단체(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인문학총연합회/한국체육학회/한국디자인학회/한국동양예술학회)의 뜻을 모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①인문사회 분야 학술정책을 담당할 조직 및 제도 제정 요구 ②국가 R&D예산 편성에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 배정 원칙 마련 ③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청원에는 4,458명의 청원자가 모였습니다. 12월 16일(수)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인문사회 학술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은 이 청원의 후속 활동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본래 국회에서 개최되었어야 하나,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개최되었음에도 1,300여명(20.12.17. 기준)이 누적 접속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학장의 임기가 다해도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면을 빌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함에도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와주셨던 동료 교수님, 부학장님, 행정실 그리고 학과 조교 선생님 등 인문대학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쪼록 개선된 인문대학 곳곳을 보며 좋아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인문사회계에도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이 조성되는 따뜻한 봄날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Contents

- 02 인문대학 소식
- 03 함께하는 인문학
- 04 김남주 기념홀
- 05 교직원 동정
- 06-09 학과
- 10-11 연구소
- 12-13 4단계 BK21사업단
- 14-15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 16-17 취업
- 18-19 신간

강기정 前청와대 정무수석,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에서 특강

인문대학에서는 10월 15일 김남주기념홀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청해 '민주와 인권, 그리고 인문도시'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20개월 동안의 대통령 정무수석 재임에 대한 소회와 청와대에서 바라본 광주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시각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 전 수석은 150만 광주를 500만 광주로 만들어야 한다며, 500만 국제도시조성협력벨트, 500만 경제신산업육성벨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벨트, 500만 인프라벨트 등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문도시 광주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전남대 전기공학과와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제 17~19대 국회의원과 지역발전위 자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으로 봉직해 왔다.

철학과 이중표 명예교수, 청송 학술상 수상자 선정



초기불교 연구가인 철학과 이중표 명예교수가 동서양 철학 사상의 연구와 비교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공로로 제10회 청송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청송장학회는 11월 7일 서울대병원 인근 함춘회관 3층 가천홀에서 제10회 청송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 명예교수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중표 교수는 붓다의 철학,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등의 저술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송장학회는 고건 전 총리의 아버지로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을 지낸 청송 고흥곤 선생의 학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청송학술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청송학술상 시상식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에서 일부 관계자만 참석해 진행됐다.

중어중문학과 이희경 교수, 대한중국학회 학술상



중어중문학과 이희경 교수가 대한중국학회 주관으로 10월 31일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추계연합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희경 교수는 지난 6월 '중국어학' 제71집에 실은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 사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적 가치관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학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세계한자학회가 후원하는 본 학술상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학술 연구 가치가 높은 우수논문 저자에게 수여된다.

인문사회 학술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회장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류재한 학장)를 비롯한 10여개의 인문사회 관련 학술단체가 12월 16일 '인문사회 학술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는 전국 인문·사회과학 학술인들이 국회와 함께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인문사회 학술연구 살리기에 앞장선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포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연구교육의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특히, 기초학술 진흥에 대한 조직과 제도적 대안으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가칭)한국기초학술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류재한 회장은 "내년도 정부 R&D예산은 27조원이 넘으나, 인문사회 분야 기초연구 예산은 그 1%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이러다 보니 박사급 연구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연구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며, 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교육 생태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 사립대학 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 국·공립대학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한국체육학회, 한국디자인학회, 한국동양예술학회 등 10여 개의 인문사회 관련 단체들이 인문사회 학술정책 담당 제도와 조직 설치, 정부의 인문사회 학술연구 예산 배정 원칙 수립,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지원책, 대학재정지원 사업 통한 인문사회계 역할 강화, 국책연구사업에서의 인문사회 분야 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불어불문학과 차지원 석사과정생, 차세대 인문학자 논문 공모전 수상



불어불문학과 차지원 석사과정생이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정신문화재단 주관한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차세대 인문학자 논문 공모전 대학원부분 장려상(3등)을 수상했다. 위 학생은 공모전의 주제였던 '문화 다양성시대의 사회적 가치-재난시대의 혐오와 차별 극복방안'에 대해 '난민'을 키워드로 해서 'EU의 난민정책 한계와 한국의 난민보호 방향-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논문을 공모했다.

이 논문의 초안이 된 논문은 차지원 학생의 학부 졸업논문(지도교수: 하영동 교수)이었으며, 공모한 논문에서는 난민유입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난민보호희망자들의 선호국가이며 현재까지도 난민문제와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 EU내에서 난민수용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라 말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난민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한국의 난민문제 해결 방향 모색과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난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함께하는 인문학〉 人紋도시·人文도시

인문대학에서는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조영풍)과 공동주관하여 9월 17일(목)부터 11월 26일(목)까지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人紋도시·人文도시’라는 주제로 하반기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

광주 전남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함께하는 인문학〉은 ‘人紋도시·人文도시’라는 주제 안에서 시민의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주제와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했다.

9월 17일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의 ‘철학으로 人紋都市 읽기’를 시작으로, 9월 24일 이종범 원장(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역사와 인문도시’, 10월 8일 김형중 교수(조선대 국문과)의 ‘문학으로 인문도시를 보다’ 강좌가

진행됐다. 10월 15일에는 전남대학교 민주포럼 공동주관으로 강기정 前정무수석을 초청해 ‘민주와 인권 그리고 인문도시’ 특강을 개최했다. 10월 29일에는 ‘인문으로서의 광주음악 그리고 인문도시’를 주제로 김원중 가수의 강연이 이뤄졌으며 11월 5일에는 도승연 교수(광운대 인제니움학부)의 ‘디지털 혁명시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두 도시 이야기’, 11월 12일에는 박구용 교수의 ‘인문도시에 대한 철학적 단상’ 강연이 이뤄졌다. 하반기 강좌는 11월 26일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하반기 인문학 강좌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서 ‘인문도시’ 키워드로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김남주 기념홀

김선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인터뷰

6월 29일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선출 선생이 김남주 기념홀을 방문했다.

김선출 선생은 1978년 전남대학교에 '민속문화연구회(탈춤반)'를 창립했으며, 그 해 6월 29일 '민주교육지표' 시위를 주동했으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적, 구속됐다.

77년 해남농민추수감사제에서 김남주 시인과 첫만남부터 시작해 민청학련 선후배와 함께 '녹두서점'에서 일본어 강독을 했던 이야기 등 김남주 시인과 얽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터뷰 영상은 김남주 기념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주 기념홀에서 개최된 학술행사 안내

[시민토크] 인물옵스큐라
‘광주를 읽는 여섯 개의 렌즈’
10월 29일(목)~30일(금)



제2회 감성인문학 학술대회
5월 항쟁과 감성정 주제
10월 16일(금)



대학생 대상 공예디자인교육 전문가 특강
Becoming craft artist: 공예가 되기
11월 25일(수)



교직원 동정

겸 무

본부

- 사학과 부교수 이성원
민주마루운영위원회 위원장 (2020. 9. 7. ~ 2022. 9. 6.)
-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조경순
학술연구위원회 위원 (2020. 12. 7. ~ 2020. 12. 06.)
- 사학과 교수 이강래
광주캠퍼스 부총장 (2021. 1. 22. ~ 2023. 1. 21.)
-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태완
학생처장

부속시설

- 사학과 부교수 이성원
호남학연구원장 (2020. 9. 3. ~ 2022. 9. 2.)
- 사학과 교수 김병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2021. 1. 22. ~ 2023. 1. 23.)

학과장 / 주임교수

-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김성은
일어일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주임교수
(2021. 1. 1. ~ 2022. 12. 31.)
-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김연민
영어영문학과 학과장
(2021. 1. 1. ~ 2022. 12. 31.)
-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현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
(2021. 2. 1. ~ 2023. 1. 31.)
- 사학과 부교수 이성원
사학과 학과장 / 대학원 사학과 주임교수
(2021. 2. 1. ~ 2023. 1. 31.)
- 중어중문학과 교수 Xu Bao Yu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주임교수
(2021. 1. 21. ~ 2023. 1. 20.)

승 진 2020. 9. 1일자

- 국어국문학과 조경순 조교수 → 부교수
- 국어국문학과 이준환 조교수 → 부교수

연구년

-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일규
(2021. 3. 1. ~ 2022. 2. 28.)
- 영어영문학과 교수 오미라
(2021. 3. 1. ~ 2021. 8. 31.)
-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김홍섭
(2021. 9. 1. ~ 2022. 8. 31.)
- 불어불문학과 교수 류재한
(2021. 3. 1. ~ 2022. 2. 28.)
- 중어중문학과 교수 양희석
(2021. 3. 1. ~ 2021. 8. 31.)
-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대성
(2021. 3. 1. ~ 2022. 2. 28.)
- 사학과 교수 임종명
(2021. 3. 1. ~ 2022. 2. 28.)
- 사학과 부교수 강은영
(2021. 3. 1. ~ 2022. 2. 28.)
- 철학과 교수 이강서
(2021. 3. 1. ~ 2022. 2. 28.)

행정실 인사발령 2021. 1. 1일자

- 입학과 → 인문대학
김미영 팀장

조교 신규 임용 2020. 9. 1일자

- 국어국문학과 하현정

국어국문학과

2020학년도 제3차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발표회

10월 22일 인문대 2호관 교수회의실 및 1호관 202호에서 국어국문학과(학과장 백승주 교수) 제3차 대학원 논문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학위청구논문 발표회로서, 석사과정 2명(현대문학 1명, 국어학 1명), 박사과정 3명(현대문학 2명, 고전문학 1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분야별 발표를 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기존에는 공개 논문 발표회였던 학위청구 논문발표회는 최소 인원만을 수용하기 위해 학과 교수와 소속 강사만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며 진행됐다.

2020학년도 제4차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예비 발표회

12월 16일 국어국문학과 제4차 대학원 논문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학위청구논문 예비 발표회로서, 석사과정 7명(고전문학 4명, 현대문학 2명), 박사과정 5명(고전문학 1명, 현대문학 2명, 국어학 2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분야별 발표했다.

기존에 공개 논문 발표회였던 학위청구논문 예비 발표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ZOOM으로 진행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자와 사회자만 대면으로 참석했다.

2020년 국어국문학과
취창업 역량 강화 문화기획 프로그램 공모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1회 실시하던 국어국문학과 정기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하는 문화기획 공모전을 개최했다. 학부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테마를 정해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총 6팀(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3)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현장실무능력 향상 및 추후 발전 가능성을 탐색함과 동시에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졸업생/취업 재학생 초청 특강

영어영문학과(학과장 오미라 교수)는 2020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진로설계와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한 졸업생 2명과 재학 중 조기 취업한 재학생 1명을 초청해 9월 30일, 11월 11일에 특강을 진행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졸업생은 각각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영어학전공,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으로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각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본인의 연구 분야를 심층 상담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설계하도록 했다.

재학 중 조기취업한 재학생은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하여 본인이 재학 당시 제2전공, 동아리 활동 등의 경험을 통해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해 영어영문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게 했다.

2020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신입생 간담회 개최

학과와 소속 학생자치위원회에서는 2020학년도 입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11월 6일 간담회를 개최해 학과 소속감 증진, 교우관계 개선, 학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학생회가 기획해 학생들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과 2021학년도 교정에서 대면으로 만나 생활하길 기대하며 내년도 학생회를 선발하는 등 학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면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독일언어문학과

신입생 대상 진로프로그램 개최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정명순 교수)는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독일언어문학과 신입생들의 자신감을 통한 나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신입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일언어문학과는 신입생들이 자기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단계에서는 '진로설계와 진로탐색을 위한 4년까지 단계별 학사지도', '우리대학 주요 기관 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안내' 등 대학생활의 기본사항을 안내했다. 2단계에서는 전공분야 진출을 위해 활동하는 '재학생 선배 멘토링', '취업 선배 멘토링' 등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외부 인사 초청특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Holland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에게 1:1 상담 및 진로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나를 찾아 나서는 진로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의 향후 진로 계획과 참여 소감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불어불문학과

2020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졸업시험 실시



불어불문학과(학과장 민진영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어능력신장 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취소됨에 따라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명의 2020학년도 후기(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6일 졸업시험을 실시했다.

졸업시험은 인문대 1호관 102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졸업시험 과목은 <기초프랑스어문법1·2>, <프랑스문학과예술사1>, <프랑스어학개론>, <기초프랑스어회화>이다.

이 중 불어불문학 전공학생은 <프랑스문학과예술사1>,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학생은 <프랑스어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이번 시험을 통해 9명의 학생이 졸업자격을 충족해 2021년 2월에 졸업할 수 있게 됐다.

프랑코포니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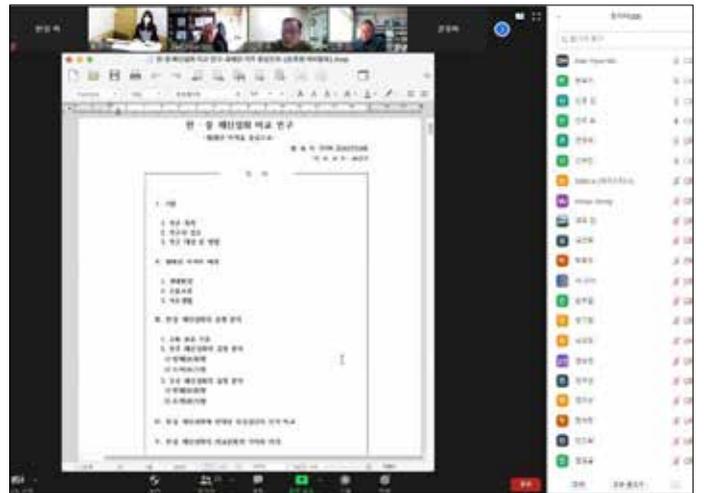
불어불문학과와 프랑스문화·지역학 연구소(소장 하영동 교수)가 주관 및 주최한 '프랑코포니 문화제'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프랑코포니 문화제에서는 프랑코포니 영화상영회, 퀘벡 대표부 유학·이민특강, 프랑코포니 학술 발표회, Fête de la francophonie, 프랑코포니 문학 포스터 발표회, 다수의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프랑코포니의 문화를 소개했다.

11일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11시에는 퀘벡 영화감독 에르베 데메르(Hervé Demers)의 퀘벡 영화 소개 및 특강이 개최됐다. 같은 날 퀘벡 대표부의 '퀘벡 유학·취업·이민 세미나'가 열렸다.

12일에는 인문대 1호관 102호에서 '프랑코포니 문학의 지평'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를 진행했다. 프랑코포니 문화제의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인문대 3호관 소강당에서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Fête de la francophonie 행사로 '공모전 시상식', '퀴즈쇼'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0년 동계 외국인 능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불어불문학과에서는 ZOOM을 통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0년 동계 외국인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DELF A1, A2, B1/B2로 총 3개의 분반을 운영해 프랑스어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어민 수준별 집중강좌로 운영했다.

외국인 교수 3인(리오넬 브르노, 제레미 에쉴프, 바네사 레진), 불어불문학과 교수 일동, 조교, 학생들(여운정 외 55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수업현장에서 교육하기 힘든 언어지식과 문화적 능력, 학문적 접근을 심화시키며 전공 적성의 심화와 진로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비대면 외국인 능력 신장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인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어중문학과

학부 졸업 논문 공개발표회

중어중문학과(학과장 김태완 교수)는 12월 11일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예정) 학부 졸업논문 공개 발표회를 가졌다.

당초 대면 공개발표회로 계획했으나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했다.

졸업 자격 인정 요건 중 전공영역으로 논문을 제출 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학부 졸업논문 공개 발표회를 실시했다.

4학년 졸업 예정자 중 6명의 학생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한 학기동안 지도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논문을 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 앞에서 발표했다. 참여자 모두가 열린 토론을 통해 발표자를 비롯한 참여한 학생 모두 전공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신입생-교수 면담 실시

학과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 학과 교수진과 신입생들의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신입생들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상담은 교수 1인에 학생 7~8명 정도로 조로 나눠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면담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바람직한 대학생활에 대해 안내했으며, 신입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동시에 스스로의 대학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학과는 12월 15일 2020학년도 전기 석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논문공개발표회는 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 발표회로 진행됐다.

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혜정 석사과정생이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논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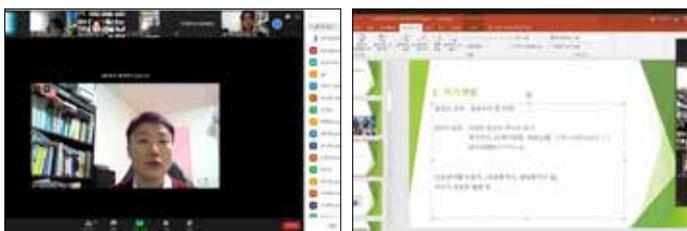
일어일문학과

학부 졸업논문 발표회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대성 교수)에서는 12월 2일 학부 졸업논문 발표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학기 학부 졸업논문 발표회를 ZOOM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발표로 진행했으며, 논문 발표자는 고민수, 박진아, 이정현, WU DI SONG ZIWE로 총 5명이다.

선배 초청 온라인 특강(통번역가 우기홍)



학과에서는 11월 11일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초청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본교 일어일문학과 출신의 전문 통번역가 우기홍(우지석)씨가 맡았다.

특강 내용으로는 통번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일, 실제 통번역 시장에 대한 정보, 프리랜서 통번역가가 되기 위한 방법 등 직업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사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 온라인 개최

사학과(학과장 강은영 교수)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가 각각 11월 20일과 27일에 열렸다.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발표회에서는 석사 학위청구논문 1편을 발표했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우수한 발표와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에서는 예비 졸업생 33명이 전필 수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 초고를 다듬어 발표에 나섰다.

사학과는 현재 학부 졸업규정으로 졸업논문 발표 및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역사학연습> 강의를 전필(3학년 2학기)로 지정하여 논문 주제 선정부터 논지 전개 및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발표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화상 수업 인프라를 구축한 사학과 전공강의실(인문대 1호관 107호)에서 개최됐다.

LINC+ 전문가 초청 산학특강 온라인 진행

11월과 12월에 사학과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LINC+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LINC+ 전문가 초청 산학특강'이라는 명칭으로 열렸다.

약 3주에 걸쳐 방송국 PD(백재훈, 광주MBC), 학예연구사(김승익, 국립제주박물관), 연구원(서명천, 한국마사회)가 <포스트코로나, 콘텐츠의 시대>, <우리나라 말 역사문화와 말산업 현황>, <박물관 전시 기획과 실무-‘탐라순력도’ 복원과 전시 기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생생한 현장경험과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특히 사학과 신입생들의 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이해>와 연계해 1학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고 학과 소속감도 고취시켰다.

사학과 정기답사 대체 인증제 실시

사학과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학기 예정됐던 추계 정기답사를 취소하고, '정기답사 대체 인증제'를 실시했다.

다만 학과 정기답사 참여는 학생들의 필수 졸업요건이기 때문에,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답사코스를 구성해 개별 답사를 다녀온 뒤 답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답사 참여횟수를 인증해주는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최소 3곳 이상의 유적지를 다녀와야 하며, 학과장이 답사보고서를 검토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답사 대체인증제는 지난 3월 춘계 정기답사를 취소 후 처음 시도했으며, 60여명의 학생들이 개별답사를 진행해 답사 참가횟수를 인정받았다.

철학과

논증적·비판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졸업논문 보조 지도 프로그램 운영

철학과(학과장 조윤희 교수)는 혁신선도 학과(부) 지원 시범 사업(이하 'PILOT사업')의 일환으로 논증적·비판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졸업논문 보조지도 프로그램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을 논문 보조 멘토로 지정하고 논문에 대한 세밀한 지도를 통해 학부생 논문의 질적 향상시키고 학생이 졸업논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진행, 9명의 대학원생이 23명의 학부생을 보조 지도해 이중 21명이 졸업논문을 제출했다.

[PILOT사업] '청년연수' 프로그램 운영



철학과는 9월 17일~11월 20일 동안 학생들을 시민인문학 강좌 및 인문학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천철학의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청년연수는 (사)인문도시연구원의 시민자유대학 시민인문학 강좌 프로그램과 연계해 <동양고전의 쓸모, 시대의 변화를 읽다> 등 4개의 시민인문학 강좌에 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인문도시 광주 기반조성 사업>,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 프로그램에 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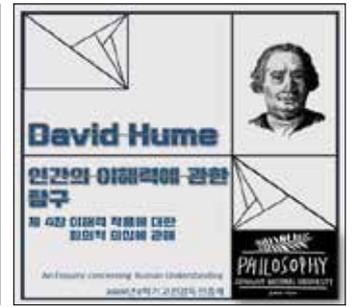
참여 학생들은 청년연수를 통해 인문학 강의와 인문학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실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경험했다.

[PILOT사업] '전공세미나' 운영

철학과는 9월 24일~12월 31일 동안 전공세미나를 운영했다. 전공세미나는 학과 내 학술연구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원)생의 전공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디지털 철학에 대한 학습한 '철발자들 (The Philgramers)' 등 11개 모둠 총 42명이 참여해 활발한 학술연구모임을 진행했다. 모든 모임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PILOT사업] '고전강독인증제' 운영



철학과는 9월 25일~10월 30일 동안 고전강독인증제를 운영했다. 고전강독인증제는 동·서양 철학 고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 및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강화시키고 학습결과물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 콘텐츠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고전강독인증제는 동양철학 분야에서 「우파니샤드」, 서양철학 분야에서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를 선정해 전공 대학원생(박사 수료)의 지도로 각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 인문 콘텐츠 제작, 결과발표회로 운영됐다.

철학과는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카드뉴스로 보는 철학고전 시리즈'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결과물은 철학과 인스타그램(cnu_philosophy)에서 확인할 수 있다.

[PILOT사업] 온라인으로 떠나는 해외 학술탐구 기행

철학과는 2021년 1월~2월 동안 '온라인으로 떠나는 해외 학술탐구 기행:세계 우수대학을 가다'를 진행한다. 이번 해외 학술탐구 기행은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과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역사, 철학, 신학> 분야에서 선정한 세계 대학 평판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철학과를 온라인으로 탐방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로벌한 시각으로 국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0년 2학기 철학과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

철학과는 11월 20일 온라인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김강민(지도교수:조윤희, 「언어의 은유적 접근 간화선」) 외 20명의 학생이 발표했다. 대상 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논문 계획서 및 개요서 제출, 공개발표회 발표, 소프트본 제출로 철학과 전공영역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2020년 2학기 철학과 대학(원)생 학위논문 발표회

철학과는 10월 30일 일반대학원 철학과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강현정 박사의 사회로 정소라(박사과정, 지도교수:노양진, 「아렌트 정치판단이론의 자연주의적 재구성」) 등 박사과정생 4명이 발표했다.

영미문화연구소

서강대 CGSI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미문화연구소(소장 김연민 교수)와 서강대 CGSI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소장 국제인문학부 임지현 교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활발한 학술교류와 연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연민 소장은 “그간 영어권 문화에 대한 학술, 교육적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온 영미문화연구소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제간 연구의 생산적인 지평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특강 성료

영미문화연구소는 2020년 가을학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실 밖 인문학 - 영어권 문화 체험’ 강연을 진행했다.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4회에 걸친 이번 강연에서는 영어영문학과 강사(안아람, 김은혜, 이해란, 이수진)들의 지도 아래 영국, 아



일랜드, 미국, 카리브 등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강의와 문화체험이 제공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대부고 영어동아리 'Intuition' 소속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돌아보고 타인에 공감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57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0월 31일 「용봉인문논총」 57집을 발간했다. 언어·문학·문화 전반의 주제를 아우르는 9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특히 「용봉인문논총」은 KCI 등재지 유지 선정을 받게 되어 인문대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토대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인문학연구소
전국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도시 공동체의 인문성과 세계성’이라는 주제로 12월 18일 인문대 1호관 202호 강의실에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1부 주제 강연과 2부 기획 발표로 구성됐다.

1부는 ‘人敎과 人文 그리고 都市’(전남대 류재한 교수)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2부는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상세계와 디지털폴리스의 인문적 비전’(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 ‘도시공동체의 타자들과 보편적 연대를 위한 인문학의 역할’(경상대 장만호 교수), ‘산업화 시기 제주로 이주한 호남인의 지역정착과 지연공동체의 형성’(제주대 염미경 교수), ‘광주의 도시성장과 과제’(광주광역시청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철학연구교육센터

‘한말 성리학계에서 노사학파의 형성과 활동’ 학술대회 개최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양순자, 철학과 교수)는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2월 18일 ‘한말 성리학계에서 노사학파(蘆沙學派)의 형성과 활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사학파(蘆沙學派)’의 학문적 특징과 한말 성리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이번 학술대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성리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링크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팀은 2019년부터 ‘노사학파(蘆沙學派)’에 대한 기초자료 정리, 주요인물 조사, 논쟁 자료집 편찬, 문화유산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어문학연구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전국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와 함께 12월 4일에 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회의로 ‘2020년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전국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5·18 민주화 운동과 한국문학’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이 학술대회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과 한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발견과 지속적인 연구를 도모하고자 했다.

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38호 발간

한국어문학연구소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어문논총」을 연 2회 발간한다. 올해 8월 31일에 「어문논총」 37호를 발간했으며 38호의 원고를 모집해 2020년 2월 28일에 발간한다.

호남학연구원

제2회 감성인문학 학술대회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사학과 교수) HK+2감성인문학연구단과 감성인문학회는 10월 16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제2회 감성인문학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5월 항쟁과 감성적 주체’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월 항쟁을 감성인문학의 관점에서 재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5월 항쟁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5월 운동의 감성적 주체화 과정이 지역과 국가에 대한 여러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횡단적 보편성에 접근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했다.

‘5월 항쟁과 감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1부에서는 ‘5월 항쟁의 시간과 기억-‘분노의 분노’를 넘어(김왕배 연세대 교수)와 ‘오월 광주공동체와 항쟁의 힘(전남대 김기성 교수)이 발표됐다.

2부 ‘5월의 재현과 지역, 국가, 그 너머’에서는 ‘누구를 위한 기억인가?-5월 항쟁의 재현을 위한 제언(부산교대 전진성 교수)와 ‘재현과 연행 사이, 오월을 기념하는 소리들(전남대 최유준 교수)이 발표됐다.

인문마을 프로젝트 진행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사학과 교수)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1월부터 노아온인문마을(무등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을 기점으로 2021년도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모임을 유도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자기의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는 인문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노아온인문마을에서는 <제1막: 위치와 조건을 초월하는 접속>과 <제2막: 나를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를 주제 삼아 장소와 시간, 트라우마와 시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지점을 중심으로 나와 이웃 그리고 마을의 삶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간다.

4단계 BK21 국어국문학과 지역어문학 기반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지역어문학 기반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4단계 BK21 최종 선정

국어국문학과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표인주 교수)이 4단계 BK21 사업 미래인재 양성 사업 교육연구단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연구단은 다중심 사회의 가치와 융합을 추구하는 지역어문학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실천하기 위해 7년간 50여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연구단은 지역어 문학 교육·연구 심화, 국제적 창의융합 인재 양성, 공공·융합 가치 실현 역량 배양, 인문형 융합 교육과정 혁신, 연구소 연계 컨소시엄 구축 등을 통해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2020년 2학기 교육연구단 오리엔테이션 실시

교육연구단은 11월 10일 인문대학 1호관 108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상기 행사는 교육연구단의 첫걸음을 내딛는 행사로 구성원들은 교육연구단의 향후 학술활동 계획과 프로그램 안내, c-lab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인주 교육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대학원생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며 교육-연구활동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KOR 컨소시엄 체결

11월 30일 인문대학 2호관 408호 교수회의실에서 국어국문학과(학과장 백승주 교수)와 교육연구단,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 교수) 세 기관의 KOR 컨소시엄 체결식이 진행됐다.

세 기관은 교육-연구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 및 우수한 교육-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어문학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KOR 컨소시엄은 12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과 지역어문학을 토대로 한 아시아문학 연대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단계 BK21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을 중심으로 체결된 KOR 컨소시엄에는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학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KOR 컨소시엄과 ACC는 협약을 통해 국제문학 행사 교류협력 프로그램 공동기획 운영, 기관 간 사업 방법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아시아문학 분야 관련 공동연구 및 직무실습 프로그램 진행, 아시아문학 작품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표인주 교육연구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유학생을 비롯한 교육연구단의 우수한 인재들이 아시아문학과 문화 관련 공동연구 및 교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4단계 BK21 영어영문학과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워크숍 개최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김연민 교수)은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 사업 교육 연구단에 최종 선정됐다. 본 교육연구단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와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문화기억 번역 실습 프로젝트인 <버스 정류장>을 공동 운영했다.

<버스정류장> 프로젝트는 1월 12일 5·18 연구소장 최정기 교수의 <5·18 구술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워크숍으로 시작해 1월 15일 한국외대 한승희 특임교수의 번역 특강 및 대학원생들의 실습으로 성료됐다. 본 프로젝트는 교육연구단의 대학원생들이 5·18 관련 풀뿌리 기억 사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학술도 서로 출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향후 교육연구단은 이 프로그램을 두 협업 단체의 장기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5월 광주의 기억을 글로컬 문화기억으로 확산시켜 국제 비교,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연구단은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겨울 방학 동안 영어권 역사연구 블록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서강대 임지현 사학과 교수가 학과 교수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미나는 ‘기억전쟁(memory war)’과 ‘기억활동(memory activism)’을 주제로 3일간 총 9시간의 집중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워크숍은 식민주의 제노사이드에서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기억 재현의 문제뿐 아니라 문화기억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분과를 넘나드는 두 단체의 협업은 이번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공동연구,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의 학술교류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연구단은 지역 독립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과 협약을 맺고 겨울 방학 동안 5회에 걸쳐 총 7.5시간의 ‘문화기억 큐레이팅’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워크숍은 이미지 연구와 문화기억 전시 큐레이팅 입문부터 글로컬 문화기억을 포섭하는 협업 큐레이팅, 나아가 기념제 예술제의 문화 기억의 재현에 이르는 예술 실천적 방식을 다뤘다. 오버랩과 교육연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본 워크숍은 기억 연구의 틀을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접근법에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했다. 향후 교육연구단의 대학원생들은 2021년 상반기에 오버랩 주관하에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철학과 4단계 BK21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

4단계 BK21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 협약 체결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단장 박구용 교수)은 11월 6일 4단계 BK21 사업 선정 후 1차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교육연구단은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전통적인 학문방법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친화적·사회문제 해결형·특수한 지역적 및 세계의 보편적인 철학자산을 횡단하는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교육연구단은 2020년 2학기 1차년도 사업에 박구용 단장을 중심으로 철학과 교수 전원과 박사후연구원 2명, 대학원생 21명(학석사연계과정 1명, 석박사통합과정 1명,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15명)이 참여했다.

교육연구단 학술연구교수 공개채용

교육연구단은 12월 1일 학술연구교수 3명을 채용했다. 학술연구교수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국철학 전공자 1명, 불교철학 전공자 1명, 프랑스철학 전공자 1명이 채용됐다.

학술연구교수는 앞으로 철학큐레이팅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철학 큐레이팅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주제 발표회 개최

교육연구단은 2021년 2월 18일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논문 주제 발표회를 개최한다. 교육연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교육연구단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연구논문작성법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을 안내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 발표 및 그에 대해 지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질적인 향상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제2회 국제학술대회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족과 커뮤니티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교수)은 12월 5일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활용해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lsa Dorlin(파리 8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Keynote speech를 필두로 류두향(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권보드래(고려대 국문과), 서동진(계원예대 융합예술학과), Adam Braun(Lutheran Theological Seminary), 김청우(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6명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는 가족관계 내부와 주변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가족 및 커뮤니티의 형태들을 설명하고, 탐구하며, 연구하는 자리로 가족과 커뮤니티의 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적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란 과연 어떻게 호명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었다.

인문학연구원-광산구청
공동주최 2020 금남 최부
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광산구청장 김삼호)과 공동주관해 ‘호남의 유교공동체 전통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2020년 금남 최부 학술대회를 11월 20일 전남대학교 Gn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박미선(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박종용(서울교대) 교수가 ‘최부의 절의정신과 도학사상에서의 위상’이란 주제로, 김병인(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고려 말 ‘절의’ 개념의 등장과 두문동72현’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2세션에서는 최대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김경호(전남대 호남학과) 교수가 ‘유학촌의 가족서사와 도학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의승(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나덕헌의 「북행일기」 연구’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매개로 호남의 유교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고영진(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플로워에 자리한 학술대회 참석자와의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제2회 국가전략포럼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12월 8일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활용해 ‘가족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제2회 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추주희(인문학연구원) HK교수의 사회로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이 ‘가족 실천 및 가족상황 실태 분석’을 발표하였고, 강의혁·김청우·류도향(인문학연구원) 교수가 ‘가족인문지표의 구성과 방향’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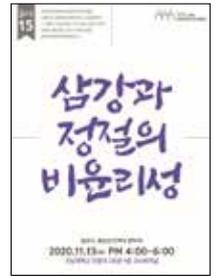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조선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용돌봄과장), 김영정(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임옥희(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주은(기본소득청소녀 네트워크 활동가) 등 5분의 토론자를 초청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인문학연구원과 가족구성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25~55세 3,000명을 패널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해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 실천의 양상에 있어 가족구성권 내 동등한 가족실천 참여와 민주적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동반자 등록법을 고민할 때 어떤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원하는 이들을 가족관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3-15차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사업단의 제13~15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Zoom 화상회의로 접속 링크를 제공해 진행됐다. 13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김청우(HK연구교수)의 사회로, 최성만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를 모시고 ‘벤야민의 사유에서 가족’ 모티프란 주제로 발터 벤야민의 사유에서 나타난 유년시절과 가족의 모티프를 정리해 보고 미메시스와 유사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은 전통적인 혈연공동체가 중심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로 분화됐다.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고,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도 생활동반자(Lebenspartnerschaft)의 관계로 확장, 변형됐다. 그러나 현실의 법과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과거의 가부장적 혈연공동체의 형태로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이로부터 여러 갈등과 불행이 생겨나고 있다. 근대 이후 쟁취해온 민주주의, 공화주의, 합리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 그 과정에서 밀려나고 소홀해진 전통, 가족, 민족, 윤리의 문제를 균형 있게 성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14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장복동(HK연구교수)의 사회로, 박주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를 모시고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Looking for another family’라는 주제로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 동시대미술에 나타난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정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연대로서 가족의 의미와 유동적인 공감의 장으로서 또 다른 가족의 상을 함께 그려보았다.

박주원 학예사는 발표에서 키워드로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forces)’, ‘개인의 가치(The value of individuals)’를 제시하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What's next?)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가족은 누구이며 어떤 의미인지, 가족의 모양은 어떠한가’ 등을 설명했다. 그럴 경우 가족은 ‘연대’, ‘사랑’, ‘지원’의 한 축과 함께 ‘규범’, ‘계약’, ‘책임’이 공존하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한 개인과 가족에게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족의 의미이며, 이중적 성격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했다. 박 학예사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및 워크숍 활동 사진을 통해 2020 아시아 기획전의 역동적 활동상을 설명했다.

15차 콜로키움은 전북대 황갑연(철학과) 교수를 모시고 ‘삼강과 정절의 비윤리성’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황 교수는 “중국과 한국에서 삼강은 유가의 핵심이념으로 정립되어 현대 한국 군사정부까지 그 역할이 지속됐다. 삼강 이념의 연원과 변천과정 그리고 비윤리성을 분석 해부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취업

2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 운영

인문대학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을 개설해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교과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과목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 대한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e클래스를 통해 온라인(녹화영상)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쌍방향 소통이 부족한 온라인 방식의 보완을 위해 e클래스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과 수강생의 일대일 상담을 적극 활용했다.

교과 내용은 채용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NCS 및 필기전형, 면접 대비 스킬, 취업계획서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 준비까지를 포함한다. 본 교과목의 운영 전반은 인문대취업지원실(인2-113)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자	구분	강의주제	강사 / 진행
9. 2.	온라인강의	오리엔테이션	인문대 취업지원관(CM)
9. 9.	온라인강의	채용동향 및 취업전략	좋은인재교육 조익수 대표
9. 16.	온라인강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분석	조혜련 강사
9. 23.	온라인강의	기업 및 업종 분석	조혜련 강사
10. 7.	온라인강의	외국계 기업 분석 특강	해피파인더 김재연 대표
10. 14.	온라인강의	자기소개서 특강	조은숙 강사
10. 21.	-	중간고사(과제 대체)	인문대 취업지원관(CM)
10. 28.	온라인강의	자기소개서 피드백 특강	조은숙 강사
11. 4.	온라인강의	공공기관 취업전략	SpecterRoss 김순호 대표
11. 11.	온라인강의	기업 인적성검사와 공공기관 NCS	SpecterRoss 김순호 대표
11. 18.	온라인강의	면접유형별 대처요령	위더스커리어 황혜진 대표
11. 25.	온라인강의	이미지메이킹, 비즈니스매너	이겨라 강사
12. 2.	온라인강의	대학생활 및 취업계획서	좋은인재교육 조익수 대표
12. 9.	온라인강의	면접 대비 1분 자기소개	이겨라 강사
12. 16.	-	기말고사(과제 대체)	인문대 취업지원관(CM)

2학기 취업/창업/문화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맞는 동아리 팀을 구성해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인문학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문학 학생들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자 취업/창업/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고 총 14개팀 동아리를 운영했다.

이들은 공기업/사기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팀과 연극공연, 문화콘텐츠 스테디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팀으로 나뉘며 총 10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활동비(30만원/1팀)는 총 2회로 나눠 정산해 지원한다. 2학기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됐으며 동계방학(2021년 2월까지) 기간에 10팀을 새로 모집해 운영한다.

2학기 인문 고전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고전에 대한 학부생의 전공역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영상콘텐츠 등의 기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융복합적인 인문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인문 고전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10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으며, 총 5개팀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인문학 고전 스터디,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제작 등이다. 팀별 총 10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비(30만원/1팀)는 총 2회로 나눠 정산하여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했으며 동계방학(2021년 2월까지) 기간 4팀을 신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0 인문대 취업 및 인턴십 수기 공모전 개최

인문대학은 취업합격자 및 인턴십 수기 공모를 통해 우수 학생의 노하우와 최근 취업 정보를 수집해 인문대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2019 취업 및 인턴십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2021년 1월 8일까지 재학생 및 최근 졸업자 대상으로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다.

인턴십의 경우 대학생활 및 인턴십을 경험한 체험을 위주로 작성하고, 취업 수기의 경우 구직경험 및 노하우를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 후 최우수 및 우수작을 시상하고 수상작 등 자료는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문대 취업지원실에 비치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2020 인문대 공인외국어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인문대학은 인문대 학생들의 핵심 취업역량으로 인식되는 외국어능력에 대한 학습동기 독려를 위해 공인외국어시험 응시료 지원 프로그램을 동계방학 기간 운영한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공인외국어시험 응시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인문대 재학생(학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우리 대학 자기계발활동 기록부에 외국어시험 결과를 등재하고 인문대취업지원실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월 중 인문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지문을 참고하거나 인문대 취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활동

인문대학은 융합인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고민을 시원하게 푼어주고 싶다는 의미이다.

금년 3월 취업프로그램 및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자 학과별 1명씩 총 8명의 학생을 선발해 12월까지 운영했다. 주요 활동은 인사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학과별 단독방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학생 대상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계정 및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카드뉴스는 도전장학금, 현장실습교육과정, 국내인턴, 열공이벤트, 자기개발활동기록부, 부복수전공,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현직자 인터뷰 등 교내외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를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insida_supporter’를 검색하거나 취업지원실(인2-113)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대학교 동문 선생님을 통해 직접 듣는...
공기만취업라데이온!
-한국콘텐츠진흥원편- (KOCCA)
 질문? NCS? 목표? **답변!**
 Instagram: insida_supporter

한국콘텐츠진흥원이란?
 : 문화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하는 기관
포아너라고할거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No!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기관 Ok!!**
 Instagram: insida_supporter

전남대학교 동문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 Q&A
 인사하신지 얼마나 되셨고 근무하는 팀(업무)은 어디신가요?
 네, 저는 2018년도에 콘텐츠에 입사해서 이제 곧 3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팀은 실감콘텐츠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내 복거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내 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고 좋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내계급은 경우업 일단 기본적으로 유급근무제도 휴가근로제 등이 가능합니다. 사내 동아리도 있어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내식당이 맛있답니다!
 Instagram: insida_supporter

입사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필수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나 하연 롱을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증이나 어학점수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걸로 인한 자신감보다는 저 스스로에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관련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CS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공공기관에서 NCS 비중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은진 NCS 유형은 타 공공기관보다 조금 색다른 유형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면서 감각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Instagram: insida_suppo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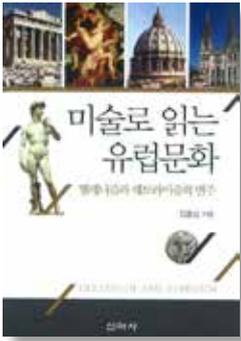
자기소개서를 쓸 때 TIP 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이를 잘 역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신의 경험들을 잘 나열해보고 무엇이 콘텐츠와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직무면접, 인성면접, 인턴 정규직 전환 면접 3단계가 있었으나 이번년도부터는 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도가 생겨 3단계는 사라졌습니다.
 Instagram: insida_supporter

기계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으신가요?
 콘텐츠 내에서 물어날 수 있는 가장 상황을 제시하고 본인이 어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기에 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좋아요.
 기업 내에서 해외 센터나 본원으로 발령 받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현재 내주 혁신도시가 본원이고 서울 광화문, 덕성, 상암, 대전 등에 본원이 존재합니다. 보통 신입은 본원에서 근무하는 편이고 해외로 갈 수 있지만 자격조건(일정 연차 이상)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Instagram: insida_supporter

현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실무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대화소통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기업이지만 콘텐츠제작자분들 공무원 등 정말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콘텐츠진흥원에서 Youtube 채널을 운영중인데 현직자분들의 취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나 기사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Instagram: insida_supporter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사를 꿈꾸는 취업생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여러분 혹은 제가 힘드실텐데 콘텐츠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꼭 '다양한 경험' 잊지마시고 지금 내가 밟아 가는 경험이 콘텐츠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필요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Instagram: insida_supporter

인사이다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LOVE YOURSELF
 Instagram: insida_supporter



미술로 읽는 유럽문화 김홍섭 신아사, 2020

이 책은 유럽 미술사를 중심으로 그리스 시대로부터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문화의 정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문화의 두 기둥이라 일컬어지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럽문화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책은 크게 세 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 헬레니즘의 형성과 발전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다룬다.

제2장 헤브라이즘의 형성과 발전에서는 초기 기독교 문화와 중세 문화를 다룬다. 제3장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융합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문화를 다룬다.



다 말하지 마세요 나희경 시와문화, 2020

저자는 온갖 현란한 문명의 이기들이 평배한 시대에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살피며, 삶이 나아갈 바를 느긋하게 읽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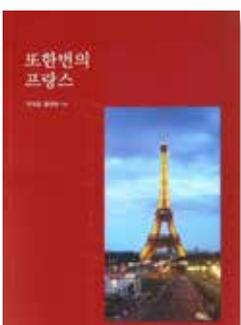
우리 시대 문명의 반생명성을 투시하면서, 사물의 내밀한 묵언을 읽는 눈을 통해 날로 형해화되고 유연성을 잃어가는 우리 시대를 투시하는 시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선양정 진사일기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0

이 책은 선양정(善養亭) 정희맹(丁希孟, 1536~1596)이 임진왜란 때 전라남도 영광에서 겪은 것들을 기록한 일기를 번역한 것이다. 그의 문집 선양정문집 권3 <잡저(雜著)>에 '일기'로만 되어 있으나, 임진년(1592) 4월 13일부터 갑오년(1594) 1월 3일까지 기록된 것을 감안해 '선양정 진사일기(善養亭辰巳日記)'로 역주자가 명명했다.

이 책을 통해서 임진왜란 당시 향토방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전란일기의 실상을 보여주고, 또 전란 속의 동맹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고자 애썼다.



또 한번의 프랑스 하영동·홍성애 maronie, 2020

2013년 여름, 저자는 프랑스에 있었다. 프랑스를 방문한 것은 13년 만이었다. 체류기간은 3주. 이 기간 동안 유학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에 가보지 못했던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작품의 배경이 됐던 곳들을 주로 돌아다녔다. 오베르 쉬르 우아즈, 바르비종, 아를, 엑상 프로방스, 마르모탕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파브르 미술관 등등. 이 책은 그 3주간의 기록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여행이 소환시켰던 80년대 유학시절의 단편적 추억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사적인 경험을 적고 있지만 그동안 가르치면서 또 스스로 배우면서 알게 된 '객관적인' 정보들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한 여행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행과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나기 전 다른 사람의 여행의 행태는 어땠는지 한번쯤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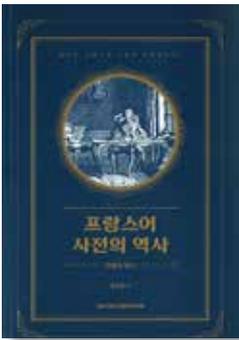
북천일록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0

이 책은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을 수행하며 적은 일기로서 이른바 유배일기를 번역하고 주석한 것이다. 곧 이항복이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모를 극력 박대하는 헌의(獻議)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죄를 입고 북청으로 유배 가는 길을 직접 따르며 그곳에서의 유배생활을 하는 스승 이항복을 수행했으며, 유배지에서 죽은 스승의 유해를 운구해 포천에 안장하기까지의 일기가 바로 <북천일록(北遷日錄)>이다.

1617년 11월 1일부터 1618년 8월 7일까지, 백사가 지냈던 충의의 큰 도리에서부터 유배지에서의 자잘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북천일록>은 병든 몸으로 가야만 하는 고달픈 귀양길, 유배지에서 죽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천신만고의 귀향길은 이항복이 살았던 삶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것인데, 격변기를 맞아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강상의 윤리를 견지한 이항복의 몸가짐을 통해서 우국충정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 이항복으로부터 지우(知遇)를 입었던 정충신이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스승을 모시는 태도를 통해서 제자의 도리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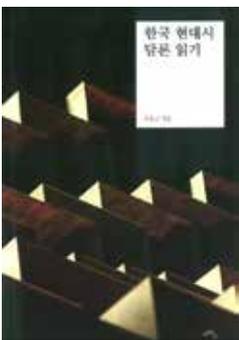
또한 이항복의 의식이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세력의 논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 사전의 역사 하영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저자는 지금까지 연구하며 발표했던 10편의 논문들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논문에서 너무 상세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사전이 출현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보충하기도 했다. 사전은 그것이 출간된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산물인 만큼 사전의 내용에 앞서 그 시대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용문들은 프랑스어와 무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로 번역했으나 사전 원문은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경우 본문에서 설명했다.



한국 현대시 담론 읽기 김동근 문학들, 2020

제1부에는 '한국 현대시 담론의 의미 지향'이라는 큰 틀 아래 다섯 편의 논문을 배치했다. 주로 한국 시문학사에서 펼쳐졌던 시론들이 담론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향하며, 또한 현대시에 내재한 시간과 공간 인식,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체험 양상이 어떻게 시적 담론을 형성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시 양식의 변화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한 글들이다.

제2부에서는 시 텍스트에 대한 담론 읽기의 실재를 보이고자 했다.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서는 시적 담론이 서사시로서의 장르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김영랑의 시에서는 담론 주체의 문제가 언술 특성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정지용의 시에서는 지배소인 공간체계가 어떻게 의미구조를 변이시키는지를 분석했다.

또 이상의 시 <오감도>의 기호체계 분석을 통해 그 작시 논리를 해명했으며, 정지용 시와 이상 시를 불연속적 시간 특질을 중심으로 분석해 그 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했으며, 서정주 시의 '주체/타자' 기호체계를 분석하여 그 담론 원리와 시적 상상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논했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김남주 기념홀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